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어머니와의 애착이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Attachment with Mother on Self-Concept,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in Korean-Chinese School Age Children*

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이 사 라
울산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박혜원

Kyunghee University
Researcher : Sarah Lee
University of Ulsan
Professor : Hyewon Park, Cho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attachment, self-concept,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The subjects were 293 Korean-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iving in Yanji and Shenyang, China.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Armsden & Greenberg, 1987), Social Competence Inventory(Doh & Falbo, 1999), and 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Harter, 1988) were used to measure the subjects' maternal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school adjustment, and self-concept, respectively. Whe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applied, the results supported not only the model that maternal attachment and self-concept exert an influence on peer relationship, but also the model that they exert an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ecure maternal attachment of Korean-Chinese works as an important mechanism that

Corresponding Author: Hyewon Park, Choi, Nambu Mookeo-2dong Ulsan University College of Human Ecology 37-308 Tel: 82-52-259-2367 E-mail: hyewonc@mail.ulsan.ac.kr

*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HM2001).

explains their peer relationship and adjustment at elementary school.

주제어(Key Words): 어머니와의 애착(maternal attachment),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자아개념(self-concept)

1. 서론

인간은 출생 직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대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생의 초기에 대부분의 아동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처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후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를 맺게 된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안내하는 자신만의 신념, 기대, 태도 그리고 사회적 경험의 역사를 가지고 관계를 맺게 된다.

한편, 인간의 적응문제와 애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Bowlby의 애착이론이 발표된 이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Rosenstein & Horowitz, 1996). 많은 연구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정신병리, 적응문제, 문제행동 등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품행장애, 주의력 장애, 우울증 등 부적응 행동에 취약하고,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 2002; Crittenden, 1995). 또한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많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에 비해 불안정한 남아는 보다 공격적이고, 독단적이고, 주의를 끌려는 행동을 보이고, 불안정한 여아는 보다 의존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Turner, 1991). 또 어릴 때 불안정 애착관계의 형성은 아동의 비정상적 공격적 행동발달의 소인이 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Constantino, 1995).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시사하는 것은 불안정 애착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안정애착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영아는 생애 초기에 대부분 주양육자인 어머니에게 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유대관계는 이후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원형으로 작용하게 되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이후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Ainsworth, 1969; Bowlby,

1958, 1973, 1979; Rothbard & Shaver, 1994). 애착이 전 생애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기제는 '작동모델'이라는 내적 표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내적 작동모델의 기본적인 특성은 "나는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인가?"라는 질문과 "내가 만나는 타인 즉, 애착대상은 믿을만하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돌봐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반영한다(Bowlby, 1980, 1988).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요한 애착대상의 접근 가능성과 반응성에 따라 자아에 대한 모델과 타인에 대한 모델로 내면화 되며, 이후 아동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돕는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이끌게 된다. 이러한 애착이론의 관점에서의 관계의 표상은 유아기에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형성된 관계성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이 학령기 이후의 아동들로 하여금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학령기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또래집단 및 교육기관 등 보다 확장된 사회적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학령기 아동들에 있어서 또래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는 매우 의미 있는 사안이며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학령기 아동들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우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들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거의 모든 상황과 시간에서 부모가 영향을 주는 아동기의 애착관계를 벗어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지고(Grotevant & Cooper, 1985), 또래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애착과 또래관계간의 관계를 살펴본 Bowlby(1969, 1973)에 따르면, 주 양육자와의 온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는 인생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안정애착 아동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갖고 타인이 자신의 요구에 반응적일 것이라 기대함으로써 또래와 협동적이고 동조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

는 능력을 발달시켜 결국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Contreras, Kerns, Weimer, Gentzler, & Tomich, 2000). 아동의 안정적인 애착성향과 대인 문제해결 및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연구에서, 안정적 애착유형의 아동들이 불안정한 애착유형의 아동들보다 낯선 또래나 성인들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더 많이 보이고(Sroufe, 1983), 문제해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며, 적응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적절한 행동을 보였다(고경애, 1984; Matas, Arend, & Sroufe, 1978)고 보고하였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고, 부모에 대해 거부적이거나 비수용적인 내적 표상을 지닌 아동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정애착 아동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므로 타인이 자신들의 요구에 반응적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또래들로부터 거부를 이끌어 내는 행동을 한다(이경숙 외, 2000). 또한 불안-회피적 유형의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문제 상황에서 방어적이고, 개인적인 실수를 인지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또래관계에서 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Cassidy, 1988). 영아기부터 학령기(9-10세)까지의 종단연구에서는(Elicker, Egeland, & Sroufe, 1992; Grossmann & Grossmann, 1991) 안정애착으로 구분된 영아들은 또래 인기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많은 친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ieberman과 동료들은(1999) 또래관계에서의 인기와 안정애착에서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지만 애착은 친밀한 우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애착관계는 아동들의 또래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Hay & Ashman, 2003). 이렇듯 초기 애착관계가 이후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애착유형이 내적 작동모델이나 자아개념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서 가장 좋은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다(Armsden & Greenberg, 1987; Kenny, 1987, 1990; Kenny & Donaldson, 1991; Larose & Boivin, 1998; Ric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

Vivona, 2000).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애착은 전 생애를 걸쳐 부모와 아동 간 정서적인 유대(bond)로써 정의되고 있다. 안정적인 애착은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발달시켜주고 다른 사람과의 지지적인 상호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Griffin & Batholomew, 1994). 학령기 아동의 새로운 학교의 입학은 제2의 “낯선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아동들은 새로운 학교생활과 교사와의 새로운 학문에 대해 잘 협상함으로써 편안하게 그 모든 상황의 전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Mattanah, Hancock, & Brand, 2004).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와 안정 애착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지지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인 면에서, 학업적인 면에서, 학교에서 정서적인 적응문제에서 불안정한 애착아보다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adford & Lyddon, 1993; Larosa & Boivin, 1998). 또한 친구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망 형성에서도 훨씬 유능한 것으로 나타났다(Blain, Thompson, & Whiffen, 1993), 우울증이나 불안, 약물중독같은 정신병리적인 문제도 안정 애착아가 덜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Vivona, 2000). 또한 9-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모에 대한 표상과 학교에서 아동의 적응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가 있다(Granot & Mayselless, 1996). 2년 단기간 종단연구에서도 안정애착을 형성한 대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생활에 훨씬 더 적응적임을 알 수 있었다(Rice et al., 1995). 이러한 연구결과는 안정애착은 아동이 성장 발달하는 전 인생동안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아동의 안정적인 애착성향과 대인문제해결 및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안정적 애착유형의 아동들이 불안정한 애착유형의 아동들보다 낯선 또래나 성인들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더 많이 보이고(Sroufe, 1983), 문제해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며, 적응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적절한 행동을 보였다(고경애, 1984; Matas, Arend, & Sroufe, 1978)고 제시하였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학교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부모와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과정을 경험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낯선상황에서 편안하지 않게

되며 이러한 정서적인 불안상태는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attanah et al., 2004; O'Brien, Friedman, Tipton, & Linn, 2000). 따라서 애착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obak과 Duemmler(1994)는 부모와 아동간의 대화를 서로간의 목표 갈등을 협상하고, 애착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애착목표에 대한 개방된 의사소통은 협력적인 반응이 기대되는 가정 내에서 강화되며, 협력적인 반응이 반복되면 자아 및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Freeney와 Noller(1996)는 안정적 애착 작동모델이 대화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보았는데, 이는 자아 및 타인에 대한 아동의 자신감이 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동들은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건설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므로, 이들은 점차 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 애착 유형의 아동들은 목표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점차 더 자신감을 얻게 되며, 부모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육자의 신호나 목표에 주의를 인지하는 능력과 타인들의 소망과 욕구를 자신의 것과 잘 조정하고 문제에 대해 협상하는 능력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Roberts, Gotlib, & Kassel, 1996). 이러한 연구결과는 애착과 자아개념이 서로 관련이 있는 변수임을 시사한다.

자아개념은 아동의 다양한 영역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적 모델이다. Harter(1990)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경우, 모든 영역의 수행에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자아개념은 비단 학생의 학업성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연구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Mattanah, Hancock, & Brand, 2004; Lapsley, Rice, and FitzGerald, 1990). 이러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하여 더 호의적인 태

도를 보이며, 학급에서 더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더 높은 인기를 얻는 경향이 있다(김동일, 김신호, 이근재, 정일호, 정종진, 2004). 높은 학업성취와 친구관계에서의 인기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으로 이끌기 쉽고, 이러한 아동은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높은 학교적응도는 높은 학업성취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자아개념과 친구관계, 학교생활적응은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로 나타났다(Marsh, 1987; Shavelson & Bolus, 1982).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된 아동이 사회적 적응 및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높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잘 수행함으로써 인기 및 자신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애착은 아동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영·유아기에 비해 아동기의 애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조선족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학령기와 청소년기의 애착을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며(이경숙 외, 2000), 조선족 사회라는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의 부족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아의 애착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험법이 아동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격리상황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애착을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질문지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초기 아동기에 속한 아동들에게는 질문을 이해하고 응답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노명희, 이숙, 1996). 그러나 인지능력이 발달된 청소년의 경우 자기보고식 애착척도가 개발되어 타당도가 입증되었다(Armsden & Greenberg, 1987). 이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애착이론에 근거해서 개발된 자기 보고식 애착척도를 사용하여 아동기 후기 및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애착을 측정할 애착의 자기보고식 척도는 행동적 차원과 정서·인지적 차원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나나, 2000; 신재은, 1999; McCormick & Kennedy, 1994). 또한 미국이나 한국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방대하나, 조선족 사회가 한국사회에

주는 의미와 영향에 비해 이들 집단의 아동발달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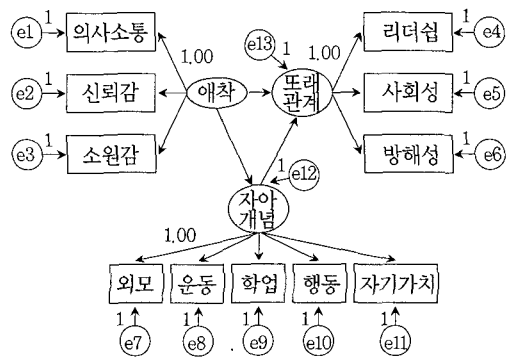
연변 자치주는 중국이라는 거시체계 내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독특한 지역으로 한국 이외의 단일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으로서는 가장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타 국가 내에서 민족어를 사용하는 단일민족으로서는 보기 드문 매우 거대한 거주지를 이루고 있다. 연변 자치주뿐만 아니라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요녕성 또한 한반도의 변계에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인구가 이주해 우리민족의 심리적·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여 한민족의 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요녕성 성도인 심양 시에도 조선족이 20만 명 이상 집단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족 학교 교육과 전통문화가 지켜지고 있는데 이곳도 최근 연변을 비롯한 다른 조선족 사회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급격한 사회변동을 맞이하여 이주와 출산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를 나타내면서 조선족 자치주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선족 아동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요구되는 시대적 문제라 하겠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한국과 중국간의 복잡한 정치 경제적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최근 동북공정 등과 같은 현상에서 나타나듯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국제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들 조선족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한민족의 세계화 과정 및 통일에 대한 준비단계로 볼 수 있다(조복희 외, 2005).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의 사회 정서적 발달 환경을 이해하고 조선족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시도로서, 중국 조선족 최대의 자치구인 연변과 심양지역의 소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애착과 또래관계,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고찰한 내용에 따르면, 부모와의 애착에서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은 아동의 또래관계,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고, 자아개념 또한 또래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애착이 또래관계,

학교적응, 그리고 자아개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애착과 관련 있는 자아개념 변인이 아동의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연구 1과 연구 2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 1〉

연구문제 1.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애착, 또래관계, 자아개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애착은 또래관계, 자아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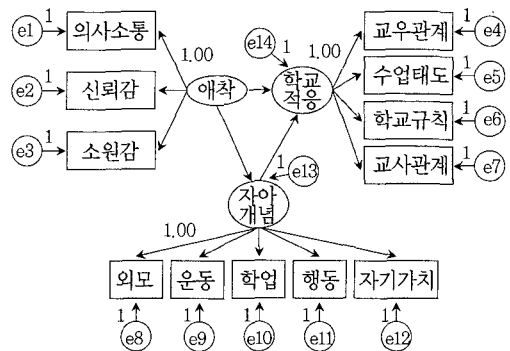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

〈연구 2〉

연구문제 1.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애착, 학교생활적응, 자아개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애착은 학교생활적응, 자아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림 2〉 연구모형 II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국 심양 조선족 소학교 6학년 학생 130명과 중국 연변 조선족 소학교 6학년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심양 소학교에서는 남아 41명(31.5%), 여아 56명(43.1%), 총 97명(74.6%)이 회수되었고, 연변 소학교에서는 남아 90명(40.9%), 여아 106명(48.2%), 총 196명(89.1%)이 수거되었다.

한편 심양 조선족 소학교 학생들의 아버지 평균연령은 43.4세, 어머니 평균연령은 40.5세였고,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고졸(50.1%), 대학이상(20.9%), 중졸(16.9%)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 고졸(52.3%), 중졸(19.3%), 대학이상(13.9%)으로 나타났다. 연변 조선족 소학교의 경우 아버지 평균연령은 43.9세였고 어머니 평균연령은 41.4세였으며,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고졸(45.8%), 중졸(18.7%), 대학이상(17.8%), 전문대졸(14.3%)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고졸(48.3%), 중졸(23.0%), 전문대졸(17.7%), 대학이상(8.5%)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애착

애착의 측정을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청년기 대상의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원본을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래 IPPA는 Likert식 5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이므로 보다 용이하게 4점 척도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동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IPPA는 세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부모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에 나의 의견을 고려하며, 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지에 관해 묻는 10개의 문항이다. 둘째는 신뢰감(trust)문항으로 걱정이 있을 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나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소원감(alienation)

요인¹⁾은 집에서 나에게 무관심하며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좌절이나 침체 등을 묻는 8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28개로 구성된 애착척도를 요인분석 하여 3개 요인에 포함된 2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점부터 4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의 내적 신뢰도(Chronbach α)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은 .90, 신뢰감은 .73, 그리고 소원감은 .51로 나타났다.

2) 또래관계

또래관계는 Doh와 Falbo(1999)의 사회적 능력척도를 사용해 아동이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후 3개의 하위영역에 포함된 19문항을 사용하였다. 3개의 하위요인은 리더십, 사회성, 방해성으로, 리더십 문항에는 여러 아이들 중에서 대표로 뽑힐 때가 많은지,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인기가 있는지 등을 묻는 7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사회성은 친구들을 좋아하는지 친구에게 양보하는지,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등을 묻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방해성²⁾은 무슨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신경질 부리며 짜증낼 때가 많거나, 사소한 일에도 잘 싸우거나 등을 묻는 5개 문항으로 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점부터 4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래관계의 하위요인별 문항의 내적 신뢰도(Chronbach α)를 살펴보면, 리더십은 .83, 사회성은 .78, 그리고 방해성은 .79로 나타났다.

3) 자아개념

자아개념의 측정도구로 Harter(1988)의 청소년용 자기-지각 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를 번안하여 아동이 응답하도록 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자기-지각 검사는 총 45문항으로

1) 역코딩 하였음.

2) 역코딩 하였음.

이루어져 있으며 9개 영역(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능력, 외모, 전반적 자기가치감(이하 자아가치감), 우정, 직업능력, 낭만적 매력, 행동)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5문항을 요인분석한 후 신뢰도가 높은 5개 하위영역을 선별하여 총 28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선별된 요인은 외모(4문항), 운동(4문항), 학업(7문항), 행동(4문항), 전반적 자기가치감(9문항)이다.

각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모요인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지, 몸매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등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으며, 운동요인은 자신이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새로운 경기를 잘 하는지 등을 측정한다. 학업요인은 학업수행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며, 자신이 학교 수업시간에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학교숙제를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학교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요인은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반적 자기가치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활방식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언제나 그렇다”까지 1점부터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개념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의 내적 신뢰도(Chronbach α)는 외모 .62, 운동 .52, 학업 .65, 행동 .53, 전반적 자기가치감 .70 이었다.

4) 학교생활 적응척도

학교생활 적응척도는 노숙영(1997)의 학교생활 적응척도와 Doh와 Falbo(1999)의 사회적 능력척도를 기초로 제작하였으며, 아동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후 4개의 하위영역에 포함된 30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4개의 하위요인은 교우관계(8문항), 수업태도(9문항), 학교규칙(7문항), 교사관계(6문항)로, 교우관계 요인에는 학교에서 한 반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는지,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은지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수업태도 요인에는 각 과목의 숙제가 너무 많고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수

업시간에 질문을 받을까봐 두려운지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규칙 요인에는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키는지,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사관계 요인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교사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점부터 4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래관계의 하위요인별 문항의 내적 신뢰도(Chronbach α)를 살펴보면, 교우관계는 .76, 수업태도는 .73, 학교규칙은 .66, 그리고 교사관계는 .68로 나타났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설문지를 제작하기 위해 중국 조선족의 어휘가 한국어휘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조선족 학생에게 검토하게 한 후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04년 12월 중 연변과 심양에서 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PC+Vers. 11과 Amos 4.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각 변인 간 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척도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각 문항을 요인분석 하였는데, 애착은 총 3개 요인으로, 또래관계는 총 3개 요인으로, 자아개념은 총 5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분석 후에 각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연구 1과 연구 2로 모형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³⁾.

3) 연구 1과 연구 2로 분석한 것은 내현변수(endogenous)인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을 측정한 문항을 살펴보면 또래관계는 지지체계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개념을 측정하였고, 학교적응은 과목의 성적, 학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 학교규율이나 질서에 대한 순응정도 등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두 변수는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함께 통합하여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III. 결과 및 해석

<연구 1>

1)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애착, 또래관계, 자아개념 간의 관계

<연구 1>의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 애착, 또래관계, 자아개념의 각 하위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은 리더십, 사회성, 방해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신뢰감은 사회성, 방해성, 외모자아개념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또한 소원감은 방해성과 외모자아개념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리더십은 운동, 자기가치감, 학업자아개념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사회성은 운동과 자기가치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고, 방해성은 외모자아개념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의 하위변인들은 또래관계의 하위변인들과 대부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개념의 하위변인들 중 외모자아개념과 행동자아개념과의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또래관계의 하위변인과 자아개념의 하위변인 간에도 대부분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2)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애착과 또래관계, 자아개념 간 구조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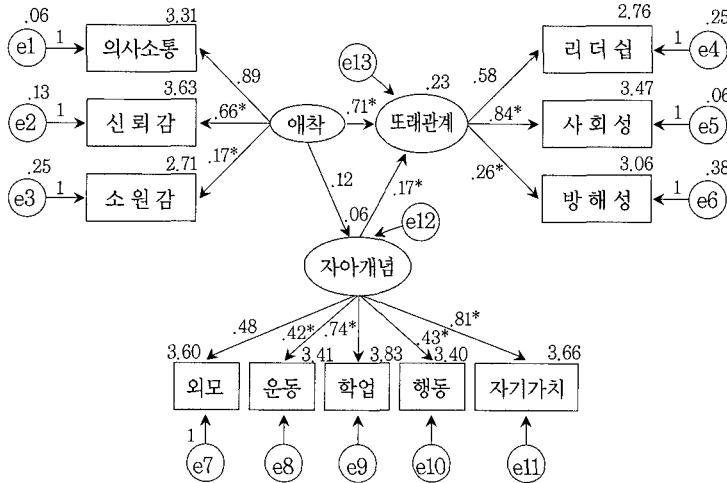
<연구 1>의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 <그림 3>과 같은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2>에 따르면, p 값이 .07이므로 영가설은 기각되지 않았다. 즉, 이론모형이 전집자료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⁴⁾.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를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하지 판단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⁵⁾를 살펴본 결과 TLI는 .98, CFI는 .99, 그리고

- 4) 분석결과 p 값이 .05 이하면 $\alpha=.05$ 일때 “완벽한 적합도에 대한 가설검증(test of perfect fit)”에 대한 영가설이 기각된 것이다. 즉 χ^2 검증에서 영가설이 기각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론 모형이 전집자료에 완벽하게 부합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므로 모형의 적합도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χ^2 검증에서 영가설은 기각되므로, 영가설이 기각되더라도 이론모형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χ^2 검증결과를 중요시하지 않는 이유는 χ^2 값이 모형 적합도 뿐만 아니라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 5) 적합도 지수의 자세한 설명은, 이사라, 박성연(2001) 또는 홍세희(2000)를 참고. CFI와 TLI가 0.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SEA가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

<표 1> 애착, 또래, 자아개념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 (Pearson r)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애착											
1. 의사소통	1										
2. 신뢰감	.58**	1									
3. 소원감	.13*	.26**	1								
또래관계											
4. 리더십	.38**	.12	-.00	1							
5. 사회성	.51**	.38**	.01	.50**	1						
6. 방해성	.28**	.30**	.27**	.02	.19**	1					
자아개념											
7. 외모	.01	.20**	.13*	.00	-.01	.13*	1				
8. 운동	.08	.01	-.04	.25**	.22**	-.07	.02	1			
9. 자기가치	.05	.13	.03	.17*	.14*	.07	.47**	.37**	1		
10. 학업	.04	.08	-.01	.22**	.10	.00	.33**	.29**	.61**	1	
11. 행동	-.01	.13*	.09	.03	.01	.11	.34**	.05	.34**	.38**	1

* $p < .05$ ** $p < .01$



〈그림 3〉 모형 1의 분석 결과

〈표 2〉 모형의 적합도 지수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모형	148.72	41	0.07	0.98	0.99	0.09

RMSEA는 .09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그림 3〉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애착과 자아개념에 대한 변인이 또래관계에 대해 총 변량의 23%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애착의 하위변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원감이 자아개념에 6%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의 경로를 보면, 애착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7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애착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12로 그 값이 유의미하지는 않게 나타났으나, 자아개념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17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애착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alpha=.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개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할 수 있다. 즉, 안정된 애착 아동일수록 또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정 애착아동일수록 또래관계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개념이 높은 아동일수록 또래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개념이 낮은 아동일수록 또래관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는 .71이었고, 자아개념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17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애착이 자아개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또래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구성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애착을 설명하고 있는 세 하위변인의 요인부하량은 의사소통(.89, 고정변수⁶⁾), 신뢰감(.66), 소원감(.17)으로 나타났는데, 즉, 애착을 구성하는 요인 중 신뢰감이 가장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래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 하위변인의 요인부

6)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용되는 잠재변수에 척도를 부여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첫 번째 표시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계수를 1.0으로 고정시켰다. 고정변수가 된 요인계수의 값에 *표시가 없다고 유의미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값들은 척도를 부여하기 위해 고정된 값이었기 때문에 추정될 필요도 없었고, 따라서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도 없으므로 가설검증의 결과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표시변수의 계수가 고정변수인지 논문에서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홍세희, 2000).

〈표 3〉 애착, 학교적응, 자아개념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 (Pearson r)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애착											
1. 의사소통	1										
2. 신뢰감	.58**	1									
3. 소원감	.13*	.26**	1								
학교생활적응											
4. 교우관계	.49**	.27**	.01	1							
5. 수업태도	.33**	.47**	.23**	.36**	1						
6. 학교규칙	.34**	.27**	-.03	.36**	.30**	1					
7. 교사관계	.39**	.30**	-.06	.53**	.33**	.30**	1				
자아개념											
8. 외모	.01	.20**	.13*	.05	.18**	.03	.04	1			
9. 운동	.08	.01	-.04	.13*	.04	.01	.02	.02	1		
10. 자기가치	.05	.13	.03	.14*	.12	.03	.03	.47**	.37**	1	
11. 학업	.04	.08	-.01	.18**	.15*	-.03	.12	.33**	.29**	.61**	1
12. 행동	-.01	.13*	.09	.03	.01	.00	-.03	.34**	.05	.34**	.38**

* $p < .05$ ** $p < .01$

하량은 리더십(.58, 고정변수), 사회성(.84) 방해성(.26)으로, 또래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 중 사회성이 가장 많은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개념의 하위요인의 요인부하량은 외모(.48, 고정변수), 자기가치(.81), 학업(.74), 행동(.43), 운동(.42)으로, 자아개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은 자기가치감과 학업으로 나타났다.

〈연구 2〉

1)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애착, 학교적응, 자아개념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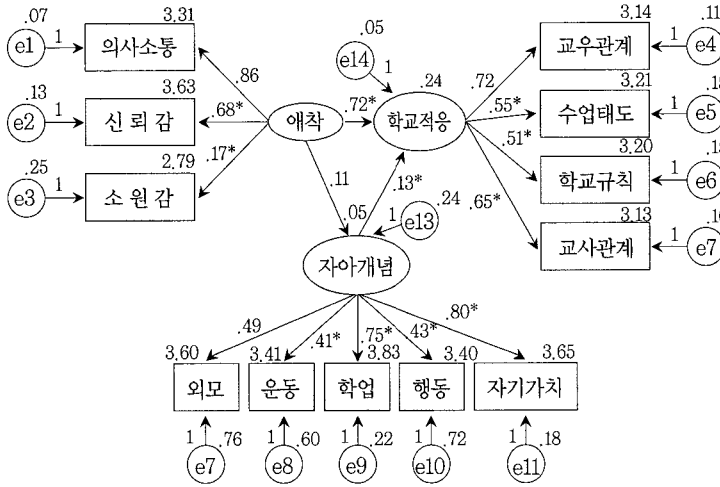
〈연구 2〉의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 애착, 학교적응, 자아개념의 각 하위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은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교사관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신뢰감은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교사관계와 외모 자아개념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원감은 수업태도와 외모 자아개념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우관계는 운동, 자기가치, 학업자아개념과 정적인 상관이 있고, 수업태도는 외모와 학업자아개념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규칙과 교사관계

는 자아개념 하위요인들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의 하위변인들은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변인들과 대부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변인과 자아개념의 하위변인인 교우관계와 수업태도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2)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애착과 학교적응, 자아개념 간 구조적 관계

〈연구 2〉의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 〈그림 4〉와 같은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따르면, 분석결과 p 값이 .00이므로 완벽한 적합도에 대한 가설검증(test of perfect fit)에 대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χ^2 검증에서 영가설이 기각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론 모형이 전집자료에 완벽하게 부합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므로 모형의 적합도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χ^2 검증에서 영가설은 기각되므로, 영가설이 기각되어도 이론모형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χ^2 검증결과를 중요시 하지 않는 이유는 χ^2 값이 모형 적합도 뿐만 아니라 표본 크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

7) 홍세희(2000) 참고.



〈그림 4〉 모형 II 의 분석 결과

〈표 4〉 모형의 적합도 지수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모형	149.32	51	0.00	0.99	0.99	0.08

과 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TLI와 CFI, 그리고 RMSEA를 선택하였다.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를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TLI는 .99, CFI는 .99, 그리고 RMSEA는 .08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그림 4〉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애착과 자아개념에 대한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총 변량의 24%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애착의 하위변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원감이 자아개념을 5%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의 경로를 보면,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72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애착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11로 그 값이 유의미하지는 않게 나타났고, 자아개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13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자아개념이 학

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는 $\alpha=.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애착과 자아개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할 수 있다. 즉, 애착이 잘 되어 있는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정 애착아동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개념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두 경로에서 나타난 수치를 비교해보면,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72였고, 자아개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1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적응에는 아동의 자아개념보다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구성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애착을 설명하고 있는 세 하위변인의 요인부하량은 의사소통(.86, 고정변수), 신뢰감(.68), 소원감(.17)으로 나타났는데, 즉, 애착을 구성하는 요인 중 신뢰감이 가장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생활 적응을 구성하고 있는 네가지 하위변인의 요인부하량은 교우관계(.72, 고정변수), 교사관계(.65), 수업태도(.55) 학교규칙(.51)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 중 교사관계가 가장 많은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중 외모(.49, 고정변수), 자기가치(.80), 학업

(75), 행동(43), 운동(41)의 요인부하량을 보였는데, 즉, 자아개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은 자기가치감과 학업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중국이라는 거시체계 속에서 한국어와 문화를 지체하고 있는 조선족이 최근 가족의 해체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족관계, 자아개념, 사회성 발달 등에 새로운 역동관계가 형성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40% 이상의 가정에서 양친 부모 중 하나가 외국으로 취업하면서 부모와의 애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 1과 연구 2에서는 중국 연변과 심양 조선족 자치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애착과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개념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애착이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애착이 이들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은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애착, 또래관계, 자아개념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애착의 하위변인들은 또래관계의 하위변인들과 대부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개념의 하위변인중 외모자아개념과 행동자아개념과의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또래관계의 하위변인과 자아개념의 하위변인 간에도 대부분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가운데 애착은 자아개념 변인 보다는 또래관계를 구성하는 요인들과 더 많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많은 영향들에 대해 보고한 선행연구들(Bowlby, 1969, 1973, 1980; Sroufe, 1990)을 지지한 결과로, 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기제로써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안정적 애착유형의 아동들은 주애착 대상과 강한 유대감(bond)을 안전기제로 의존하여 모든 상황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Kerns, Klepac, & Cole, 1996), 이러한 안전기지는 학령기 아동들로 하여금 낮은 또래나 낮은 학교상황에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개념과 또래관계의 상관도 나타났는데, 자아개념이 높은 경우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Lapsley et al., 1990; Mattanah et al., 2004)와 이러한 학생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더 높은 인기를 얻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김동일 외, 2004)을 지지한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현상은,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 학령기 아동은 학교에서 새롭게 상호작용해야 하는 또래관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애착은 또래관계, 자아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한 결과,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71)과 자아개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17)의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영향의 크기를 비교할 때,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변인으로 애착이 자아개념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들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지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로써 어머니와의 애착에 대해 측정하였는데, 결국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내적표상(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 설명)이 자신의 현재 또래관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녀와 부모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Maccoby, 1992).

셋째,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애착, 학교생활적응, 자아개념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애착의 하위변인들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들과 대부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개념의 하위변인들과는 외모자아개념과 행동자아개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과 자아개념의 하위변인 간에서는 교우관계와

외모, 학업, 자기가치감이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수업 태도와 외모, 학업자아개념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가운데 애착은 자아개념 변인 보다는 학교생활적응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더 많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많은 영향들에 대해 보고한 선행연구들(Rice et al., 1995; Sax, Astin, Korn, & Mahoney, 1999)을 지지한 결과로, 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새로운 낯선 상황에서 적응 기제로써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애착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능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신입 대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부모와 어릴 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신입생들은 대학적응을 훨씬 더 잘하였고 졸업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rmsden & Greenberg, 1987; Kenny, 1987, 1990; Kenny & Donaldson, 1991; Larose & Boivin, 1998; Rice, FitGerald, Whaley, & Gibbs, 1995; Vivona, 2000). 즉,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전 생애에 걸쳐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갖도록 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편안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자아개념과 학교적응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는, 자아개념에서의 개인차는 학생의 학습과 행동에 정서적 인지적 영역의 상호작용에서 차이를 나타내고(Badura, 1997; Harter, 1996; Hay, Ashman, van Kraayenoord, & Stewart, 1999), 또한 자아개념은 학생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줌으로써(Hay, Ashman, & van Kraayenoord, 1994; Valentine, 2002),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학생에 비해 낮은 자아개념의 학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교육적인 기대도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리더십도 부족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현상은,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 학령기 아동은 새로운 학교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애착은 학교생활

적응, 자아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한 결과, 애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72)과 자아개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13)의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영향의 크기를 비교할 때,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는 변인으로 애착이 자아개념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자신의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이 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학문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보고하였다(Bradford & Lyddon, 1993; Holmbeck & Wandrei, 1993; Larose & Boivin, 1998). 또한 친구와 더 많은 사회적 연결망이 있고 외로움을 덜 느끼고, 우울이나 불안, 심지어 알콜중독과 같은 정신병리적 증후도 더 작게 나타났다(Blain, Thompson, & Whiffen, 1993; Brack, Gay, & Matheny, 1993).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애착이 한 개인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애착의 기능은 개인의 심리내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직장에서의 발달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애착이 직업의 업무수행능력에 있어서의 발달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Blustein과 동료들(1991)의 연구에서는 애착이 직업 수행에 있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변수임을 밝혔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애착이 자아개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학교생활적응에 미치고 있는 결과는, 다시 말해, 애착은 인간 생애의 거의 모든 전반에 걸쳐 기능하고 있는 중요한 변수로,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애착과 자아개념이 또래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변량은 23%로 나타났고, 애착과 자아개념이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해주고 있는 변량은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및 자아개념 이외에 다른 변인들이 중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변량이 각각 77%, 76%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 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한 Main과 동료들의 연구(1985)에서 보면, 현재 성인기에

안정적 애착유형을 가진 대상들이 모두 자신의 부모를 따뜻하고 애정적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애착의 주욕구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다른 관계들(예를 들면, 형제자매나 조부모 등 부모 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 친밀한 또래들 등)이 학령기 아동의 자아 및 타인, 관계에 대한 정신적 표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Hazan, 1992; Hazan & Zeifman, 1994). 특히 중국 조선족의 경우, 최근 돈을 벌기위해 한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등지로 부모가 떠나있기 때문에 부모와 어릴 때부터 헤어져 사는 아동의 경우가 많다(임계순, 2003). 이러한 상황은 애착의 주대상이 어머니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아동기 이후에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 이외의 다른 중요한 애착 관계를 통하여 애착의 작동모델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한 개인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Epstein & Erskine, 1983)를 통해 기존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과 일치하지 않은 관계경험이 변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또는 Main(1991)이 주장한 개인 내적인 경험 - 예를 들면, 과거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의 연구에서 제시한 초인지적 탐지(meta-cognitive monitoring) - 등을 통해 작동모델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Bowlby(1973)는 애착이론의 중요한 가정으로 생애 초기에서 성인기까지 작동모델들은 다양한 경험의 과정을 통해 조정되고, 재구성되며, 보다 정교해지는 능동적인 구조라는 점도 제시하였다(Bowlby, 1988).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애착의 작동모델의 안정성과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안정성을 촉진시키는 요인과 변화의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부모와 분리되어 살게 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의 경우 애착의 주 대상의 변화와 그로 인한 애착의 안정성과 변화에 대해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조선족 사회의 변화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및 적응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이라는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자아개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의 연령효과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본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자아개념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시기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일반 자아개념 연구들은 자아개념이 사춘기 이후에 안정된다고 밝힌다(송인섭, 1998). 즉, 자아개념은 대개 영·유아기 시기에 발현되면서 증가하다가 8세에서 10세 사이에는 감소되고, 청년기중기 이후에 안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Morse, 1964). 따라서 자아개념의 미완성시기에 있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또래관계에 아직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령효과와 유무에 대해 확인해보는 작업이 요구된다. 즉, 중국 연변과 심양 조선족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변인을 사용하여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본다면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자치구 중 연변과 심양 두 곳에서만 연구대상을 수집하였고, 그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중국 조선족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사용한 측정도구의 일부는 내적 합치도가 낮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애착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이 자신의 지각에 의해 답변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초기 청소년기에 진입한 초등학생에게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애착이 문화와 환경의 차이에 상관없이 학령기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적응 변인으로 꼽히는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영·유아기 때 부모와의 강한 유대감이 전 생애에 걸쳐 문화적 차이에 영향 받지 않고 사회·정서 및 인간관계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Bowlby의 애착이론을 실증적으로 지지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에 있어서, 아동의 성에 따른 적응문제의 형태를 밝혀 볼 수 있다면, 애착에 있어서의 성(gender)효과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애착관계 및 아동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의 역동적인 기제(mechanism)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경애(1984).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일, 김신희, 이근재, 정일호, 정종진(2004). 아동발달과 학습. 교육출판사.
- 노명희, 이 숙(1996). 아동기 애착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 35-46.
- 노숙영(1997).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학지사.
- 신나나(2000). 부모-자녀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과 청소년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재은(1999). 청소년의 애착 및 우정관계와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1(1), 51-59.
- 이사라, 박성연(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2(4), 17-32.
- 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 정, 김광일(2002). 청소년의 애착상태와 문제행동과의 관계-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신경정신학회, 41(2), 274-282.
- 임계순(2003).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현암사.
- 조복희, 박혜원, 이사라, 이주연, 박민정(2005). 중국 조선족 아동의 사회성·정서발달과 사회적 영향요인. 부산: 서림출판사.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 위크샵교재.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insworth, M. D. S. (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1025.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lain, M., Thompson, J., & Whiffen, V. (1993). Attachmen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late adolescence: The interaction between working models of self and others. *Journal of Adolescence Research*, 8, 226-241.
- Blustein, D., Walbridge, M., Friedlander, M., & Palladino, D.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s.

- Brack, G., Gay, M., & Matheny, K. (1993).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and coping resources among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s Development, 34*, 212-215.
- Bradford, E., & Lyddon, W. (1993). Current parental attachment: Its relation to perceived psychological distr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4*, 256-260.
-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 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Constantino, J. N. (1995). Ear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children.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2*, 259-273.
- Contreras, J. M., Kerns, K. A., Weimer, B. L., Gentzler, A. L., & Tomich, P. L. (2000). Emotion regulation as a mediator of associations between mother-child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111-124.
- Crittenden, P. (1995).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In *Attachment Theory*. Ed by Goldberg, S, Muir, R, Kerr, J. New York: The analytic press, 367-406.
- Doh, H. S., & Falbo, T. (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3*(1), 149-162.
- Elicker, J., Egela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Parke & G. W. Ladd(Eds.),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Hillsdale, NJ: Erlbaum, pp77-106.
- Epstein, S., & Erskine, N. (1983). The development of personal theories of reality. In D. Magnusson & V. L. Allen (Eds.), *Human development: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pp.133-147). New York: Academic Press.
- Freeney, J. A., & Noller, P. (1996). *Attachment style, working models, and communication*. Newbury Park, CA: Sage.
- Granot, D., & Maysseles, O. (1966).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patterns and adaptive functioning in the school environment among children in middle childhood. *Post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Quebec City, Quebec, Canada.*
-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s: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430-445.
- Grossmann, K. E., & Grossmann, K. (1991). Attachment quality as an organizer of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s. In P. Morris, J. Stevenson-Hinde, C. Parker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New York: Routledge, pp93-114.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Harter, S. (1988). *Manual for the Self-Concept Profile for Adolescents*.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Press.
- Harter, S. (1990).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 J. Kolligian (Eds.), *Competence considered*(pp.

- 67-97).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arter, S. (1996). Historical roots of contemporary issues involving self-concept. In B. A. Bracken(Ed.), *Handbook of self-concept: Developmental, social, and clinical considerations* (pp. 1-37). New York: Wiley.
- Hay, I., & Ashman, A. F. (2003).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emotional stability and general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parents, peer, and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50(1), 77-91.
- Hay, I., Ashman, A. F., & van Kraayenoord, C. E. (1994). Children's self-concept and their thinking: How are they related? In J. Edwards(Ed.), *Thinking: Interactional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pp. 259-268). Highett, Victoria: Hawker, Brownlow Education.
- Hay, I., Ashman, A. F., van Kraayenoord, C. E., & Stewart, A. (1999). The identification of self-verification in the formation of children's academic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 225-229.
- Hazan, C. (1992). *Process of attachment formation and transfer*.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onal Relationship, Orono, Maine.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pp. 151-178). London: Jessica Kingsley.
- Holmbeck, G. N., & Wandrei, M. L. (1993). Individual and relational predictors of adjustment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40, 73-78.
- Kenne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17-27.
- Kenney, M. E. (1990). College seniors' perceptions of parental attachments: The value an stability of family ti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1, 39-46.
- Kenny, M. E., & Donaldson, G. (1991). Contributions of parenta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8, 479-486.
- Kerns, K. A., Klepac, L., & Cole, A. K.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 of security in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57-466.
- Kobak, R. R., & Duemmler, S. (1994). Attachment and conversation: Toward a discourse analysis of adolescent and adult security. In K. Bartholomew & D. Perma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pp. 121-149). London: Jessica Kingsley.
- Lapsley, D. K., Rice, K. G., & Fit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ling and Development*, 68, 561-565.
- Larose, S., & Boivin, M. (1998).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support expectation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during the high school-college transi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 1-27.
- Maccoby, E. E. (1992). The role of parent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An history over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 1006-1017.
- Main, M. (1991). Metacognitive knowledge, metacognitive monitoring, and singular (coherent) vs. multiple (incoherent) model of attachment.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pp. 127-159). London: Tavistock/Routledge.
- Main, M., George, C., & Kaplan, N. (1985). *The Berkeley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protoco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arsh, H. W. (1987). The big-fish-little-pond effects on academic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280-295.
- Matas, L., Arend, R., & Sroufe, L. (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Mattanah, J. F., Hancock, G. R., & Brand, B. L. (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al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13-225.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23*(1), 1-18.
- Morse, W. C. (1964). Self-concept in a school setting. *Childhood Education*(pp. 195-198).
- O'Brien, K., Friedman, S., Tipton, L., & Linn, S.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01-315.
- Rice, K. G., FitzGerald, D. P., Whaley, T. J., & Gibbs, C. L. (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ling & Development, 73*, 463-474.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Personality Process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70*, 310-320.
-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Clinical Psychology, 64*, 244-253.
- Rothbard, J. C., & Shaver, P. R. (1994). Continuity of attachment across the life span. In M. B. Sperling & W 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pp. 31-71). New York: Guilford Press.
- Sax, L., Astin, A., Korn, W., & Mahoney, K. (1999). *The American Freshman: National norms for 1999*. Los Angeles: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California.
- Shavelson, R. J., & Bolus, R. (1982).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to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 Sroufe, L. A. (1983). Individual patterns of adaptation from infancy to preschool. In M. Perlmutter(Eds.), *The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Vol. 16, pp. 41-81). Hillsdle, NJ: Erlbaum.
- Turner, P. J. (1991). Relation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62*, 1475-1488.
- Valentine, J. C.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achievement: A meta-analytic review.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2(9-B), 42-78.

Vivona, J. (2000). Parental attachment styles of late adolescents: Qualiti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consequences for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47, 316-329.

(2005년 5월 24일 접수, 2005년 7월 22일 채택)